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祝 세례식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8/1	김종훈	베드로	5지역	김현엽	레오
16/1	강요순	데레사		이선우	안나
18/2	송지현	라파엘라		조명자	레아
21/1	이정숙	마리아		하자춘	에리카
21/4	김효림	레지나			

◎ 새 신자 피정

- 제 목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 대 상 : 2019년~2022년 세례자
- 일 시 : 12월 4일(일), 10:00~15:30
- 장 소 : 강 당

◎ 알 림

11월 27일(일)	성체조배실 개방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12월 2일(금)	첫 금요일 저녁미사 후 성체 강복식
12월 4일(일)	국군장병과 수감자를 위한 2차 헌금
12월 9일(금)	지역별 병자영성체(봉성체)
12월 10일(토)	대림 맞이 본당 대청소(10시)
12월 14일(수)	임원모임(식당, 20시)
매주 목요일	시니어아카데미(강당, 10시 40분)
성령기도회	모임은 1년간 잠정 섬.

※ 새벽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12월 3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위령봉사회	12월 4일(일), 11:40	보수교를
M.E.	12월 4일(일), 11:50	6교실
제대회(현화회)	12월 6일(화), 10:30	2교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12월 8일(목), 19:40	1교실
1Cu-우리 어머니	12월 11일(일), 12:00	강 당
2Cu-사도들의 모후	12월 11일(일), 13:30	강 당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10월 31일 현재 ₩18,300,000납부되었습니다.

◎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20:00)

일 자	제 목	강 사
12월 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즐거로운 신앙생활	양승국 스테파노신부님
12월 15일	성사적 신비를 사는 그리스도인	박해승 요한보스코 신부님

◎ 대림시기 준비

- 대림절 신앙실천 봉투(대림저금통), 판공성사표, 달력 등은 구역·반장님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 5지역(구역외) 신자는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대림판공성사 지역별 일정
 - 1지역/2지역 : 12월 12일(월), 20:00
 - 3지역/4지역/5지역(구역외) : 12월 13일(화), 20:00
- 2022년도 교무금 납부 및 2023년도 교무금 책정합니다.

◎ 다음 주일(12/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6구역	청 소	7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16일 ~ 11월 22일)

교 무 금	5,983,000원
주일헌금	4,552,000원
시설헌금	손상민125만원
	박효준30만원 황정후10만원 오성환10만원
감사헌금	이영순10만원 양옥순 5만원 이봉연10만원
	김종란30만원 박재형20만원 장기복10만원
	성령기도회68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27	권태희	신종구	최상림
12/4	황원선	심재순	장희석
		안상록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27	최영만	박용환	김광수	김영배
12/4	김인기	박형순	이운영	박용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233. 사회적 우애의 증진에는, 역사적 반목의 시기를 지내면서 서로 사이가 멀어진 사회 집단들이 다시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분야들과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라—특히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들이—흔히 잊히거나 무시되어 온 우리 형제들의 존엄을 인정하고 보장하며 실질적으로 재확립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형제들이 자기 나라의 운명의 주역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34. 사회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은 흔히 부당한 일반화의 희생자가 되어 왔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이 반사회적으로 보이는 태도로 반응한다면, 많은 경우에 그러한 반응은 그들이 그동안 멸시당하고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역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주교들이 가르쳐 준 대로 “가까이 있음만이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해주고, 오늘날 가난한 이들과 그들의 정당한 열망과 그들의 특별한 신앙생활 방식이 지닌 가치를 우리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줍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은 가난한 이들과의 우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235. 사회에 평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불평등이 있고 온전한 인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온갖 형태의 공격과 분쟁은 계속 싹을 틔울 토양을 찾고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지역 사회든 국가 사회든 한 사회가 그 일부 구성원을 소외시키려 하면, 어떠한 정책이나 공권력이나 감시 체제도 평온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언제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